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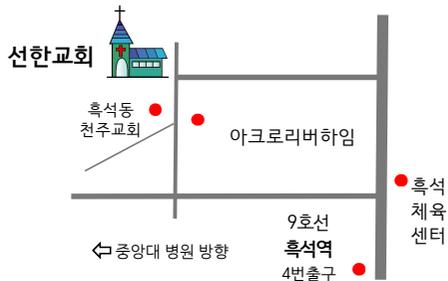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 주 일 예 배                |              |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               |
|------------------------|--------------|-----------------|---------------|
| 1부 주일 오전 9:30          |              | 오전 11:00        | 여호수아회 오후 2:00 |
| 2부 주일 오전 11:00         | 믿음의 씨앗 (유아부) | 오전 11:00        | 요셉회 오후 2:00   |
| 3부(청년) 오후 1:00         | 선한 꿈 (유초등부)  | 오전 11:00        | 바울회 오후 2:00   |
| 주일 오후 3:30 (5째주 셀가족모임) | 파워틴 (청소년부)   | 오전 10:00        | 루디아회 오후 1:00  |
| 수요일 저녁 7:30            | 청년부          | 오후 1:00         | 마리아회 오후 2:00  |
| 수요일 저녁 8:30            | 비전위십         | 오후 2:00         | 에스더회 오후 2:00  |
| 월-금요일 새벽 5:30          |              |                 |               |
| 셀가족모임                  | 셀별로 정한 시간    |                 |               |

섬기는 분들

|             |  |   |
|-------------|--|---|
| <b>사역자</b>  | <b>담임목사</b> 임춘배<br>교육목사 정용준<br>전임전도사 윤영<br>협력전도사 오호남 | <b>국내선교사</b> 오인숙, 한배선<br><b>협력교회</b>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br>기쁨교회 (유성은 목사)<br>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br>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
| <b>은퇴장로</b> | 고상돈, 김대희<br>박희태, 유신웅<br>조윤익                          | <b>해외협력선교사</b>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
| <b>장로</b>   | 이태수 (집사장)<br>박영근, 윤호중<br>조계승, 편도선                    | <b>관리장로</b> 손석규<br><b>500/50 교회</b> (1호) 필리핀 Good Church<br>(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 표어              | 너희는 강하게 하라 (대하 15:7)<br>Be strong and do not give up |                 |        |
|-----------------|--|-----------------|--------|
| 실천사항            | 믿음의 선포   | 제자의 삶           | 선교사의 삶 |
| 삶의 방식 (빌 4:1-7) | 교회에 대하여 :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        |
|                 | 개인에 대하여 :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        |
|                 | 성도에 대하여 :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        |
|                 | 문제에 대하여 :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        |

첫째 주 예배  
에베이 / 스승 / 목회자 주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흠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딤후 2:9~10)



기독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춘배

주일  
예배

오전 11:00

인도 : 임춘배 목사

|         |                         |
|---------|-------------------------|
| 기원      | 인도자                     |
| 찬양과 경배  | 다함께                     |
| 교독문     | 교독문 18번 (시편 31편)        |
| 찬양과 경배  | 찬송가 64장 (통일찬송가 13장)     |
| 기도      | 윤호중 장로                  |
| 말씀봉독    | 디도서 2장 9~10절            |
| 설교      | 순종하여 기쁘게 하라<br>(임춘배 목사) |
| 헌금      | 헌금송: 청년부                |
| 환영 및 광고 | 인도자                     |
| 찬양과 경배  |                         |
| 축도      | 임춘배 목사                  |
| 성도의 교제  | 다함께                     |

체육예배 순서

|             |            |
|-------------|------------|
| 13:10~13:25 | 전체 게임      |
| 13:25~14:00 | 축구         |
| 14:00~14:30 | 뚝바로 걷고 싶어요 |
| 14:30~15:00 | 농구         |
| 15:00~15:30 | 달리기        |
| 15:30       | 상품권 추첨     |

수요  
예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 46편 1~11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안내**
  - 1) 오늘은 체육예배로 드립니다.
  - 2)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 3) 오늘 점심은 셀별로 드시기 바랍니다.
  - 4)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5) 주차 안내: 중대부속중학교 주차장
    - \* 중앙대 정문 주차장도 이용 가능합니다.
    -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정용준 목사에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어버이/목회자 스승주일** 교회에서 목회자와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 헌신예배** 28일(주일) 오후예배는 마리아/드보라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 떡제공** 손영삼, 백미경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 생수/음료수 기증** 체육예배를 위해 김기호 집사님께서 생수와 음료수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 결혼** 윤호중 장로님, 허정미 집사님의 차남 중훈군이 결혼을 합니다.
  - \* 일시: 5월 20일(토) 오후 2시
  - \* 장소: 서울대학교 엔지니어하우스 이라운지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      |   |
|------|---|
| 찬양   | 하나님의 크신 사랑 (15장)  |
| 본문   | 사무엘하 18:31~33   |
| 말씀   | <p>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야 했어요. 사람들이 왕은 1만 명의 군사만큼의 중요란 리더니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말리는 바람에 다윗은 두 문 사이에 앉아서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이긴다면 자신의 왕권이 무너짐과 동시에 죽임당할 상황이고, 다윗의 군대가 이긴다면 압살롬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전장에서 압살롬이 다윗의 군사와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노새를 타고 있던 압살롬은 커다란 상수리나무의 굵은 가지에 머리털이 걸렸어요. 그런데 노새가 그대로 달아나 버려서 압살롬이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어요. 다윗의 군사들은 “나를 위해 어린 압살롬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라”라는 왕의 명령 때문에 압살롬 치기를 주저했지만, 요압이 곧장 압살롬에게 나아가 그를 죽였어요. 결국 압살롬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졌고, 2만명의 사상자를 내었어요. 다윗의 죄(12:9)와 압살롬의 정치적 욕심이 합쳐져 동족끼리 싸우게 된 참으로 안타까운 전쟁이었어요. 비록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지만 부하들은 이 승리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길 꺼렸어요. 요압은 구스 사람을 보내 이 소식을 전하게 했어요.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차라리 압살롬 대신 자신이 죽었으면 좋았겠다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슬퍼했어요. 비록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자신의 첩들과 대낮에 동침하고 자신을 대적해 싸웠지만, 다윗은 아들이 죽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지금 다윗은 압살롬을 정치적 대적작사 아닌 아들로서 불쌍히 여기며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을 대항해 반역했다 하더라도 다윗의 마음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로 아들들이 죽은 거 같아서 마음이 더 아팠을 거예요.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윗이지만 그는 아들 압살롬을 많이 사랑했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죄인인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p> <p>“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와 말씀의 언약을 맺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 칼로 헛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삼하12:9)</p> |
| 나눔   | <p>1) 구스 사람은 반역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좋게 여겨 다윗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나요?(33절)</p> <p>2)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해야 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p>   |
| 가족미션 | 가족들과 ‘빨리 변하고 있는 것’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에 관해 이야기 하며 자녀에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세요.   |
| 기도   |   |

제목

## 순종하여 기쁘게 하라 (딤후 2:9~10)

서론

오늘은 어버이/스승/목회자 주일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여 고마움을 표현해 봅시다.

### 1. 기쁘게 하는 것

(1) 순종하라는 명령: ①하나님께 순종(신 13:4), ②부모에게 순종(엡 6:1), ③남편에게 순종(벧전 3:1), ④상전에게 순종(딤후 2:9)

(2) 순종을 기뻐한다: ①하나님께서 순종을 기뻐하심(삼상 15:22), ②부모도 기뻐함(골 3:20), ③상전도 기뻐함(딤후 2:9)

(3) 순종하는 습관이 축복의 씨앗이다.

본론

(4) 순종의 습관: ‘거슬러 말하지 말며(복종), 흠치지 말고, 모든 신실성을 나타내라’(9,10절) /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빌 2:14)

### 2. 교훈

(1) 순종하라는 명령을 행하고 있는가?

(2)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3)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결론

순종함으로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예배 섬김이

|          | 오늘 섬기실 분 | 다음 주 섬기실 분 |
|----------|----------|------------|
| 2부 예배 기도 | 윤호중 장로   | 이태수 장로     |
| 2부 예배 헌금 |          | 이소영 집사     |
| 오후 예배 기도 |          | 서창덕 집사     |
| 주 방 봉사   |          | 루디아회       |

|         |   |                           |             |
|---------|---|---------------------------|-------------|
| 매일 Q.T. |   | 대대손손 반역자로<br>기억되는 이름, 압살롬 | 날짜 : 5월 15일 |
| 찬양      |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                           |             |
| 본문      | 사무엘하 18:16~23   |                           |             |
| 말씀요약    | 죽은 압살롬이 구멍에 던져지고 그 위에 돌무더기가 쌓입니다. 그가 생전에 세운 비석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어집니다.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승리 소식을 전하러 가겠다고 하지만 요압은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결국 허락을 받아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다윗에게 갑니다.   |                           |             |
| 목상질문 1  | 돌무더기 무덤에 묻힌 압살롬 18:16~18<br>압살롬이 예루살렘 가족묘가 아닌 돌무더기 무덤에 묻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압살롬은 반역자로 기억되는데,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                           |             |
| 목상질문 2  | 승리를 전하러는 아히마아스 16:19~23<br>아히마아스가 승전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러 하자 요압이 만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상대의 상황을 고려해 말을 가려서 하는 지혜가 있나요?   |                           |             |
| 한절묵상    | 사무엘하 18장 17~18절<br>반역자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아름다운 외모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했던 압살롬은 창에 찔리고 여러 사람에게 맞아서 죽음을 당해 구덩이에 던져지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 삶의 이야기를 전해 줄 사람도 없고, 단지 '압살롬의 기념비' 하나만 남긴 인생이 됩니다. 화려한 삶 같았으나 실상은 한없이 가벼운 삶이었던 것입니다. 외적 화려함은 인생을 덮는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이 보장되는 믿음입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하나님, 억울하고 참담한 상황에서도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제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한탄을 멈추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제 이름을 이 땅에 남기기 위해 애쓰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대대로 전하며 영원히 드높이게 하소서.   |                           |             |

|                        |   |
|------------------------|---|
| 개인성경공부 “자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   |
| 찬양과 기도                 |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새 456) 약할 때 강함 되시네   |
| 목상 나눔                  |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
| 이야기 속으로                | 암에 걸렸다가 수술 끝에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지인들이 그녀를 병문안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사람 대부분이 그녀의 상태를 보며 한마디씩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물을 잘 안 마셔서 병에 걸렸다고, 운동을 안 해서 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서 암에 걸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언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실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말했습니다.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저도 잘 알아요.” 그녀는 찾아온 사람들에게 병의 원인이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통을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통받는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위로와 자비가 필요한 이들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갔던 경험이 있나요? |
| 말씀 나누기                 | 사무엘하 19:1~8   |
| 목상포인트                  | 다윗 가문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 죽자, 다윗은 큰 슬픔에 휩싸입니다. 왕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정도로 커다란 아픔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왕국을 회복시키시며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험박하듯 다윗을 책망한 요압은 후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로 인해 심판을 받습니다(왕상 2:5~6, 29~33). 성도는 아픔이 찾아오는 인생의 어두운 계절 속에서도 변함없이 구원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본받아 세상을 사랑과 긍휼로 섬깁니다.   |
| 나에게 주신 메시지             |   |
| 관찰과 목상                 |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나요?(1~4절)  |
| 적용하기                   | 나는 인간적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 함께 기도하기                | 인생에 슬픔과 아픔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사랑과 긍휼로 품고 섬기게 하소서.   |
| 기도                     |   |

|         |   |                             |             |
|---------|---|-----------------------------|-------------|
| 매일 Q.T. |   | 지도자에게 필요한<br>관용의 마음, 분별의 지혜 | 날짜 : 5월 19일 |
| 찬양      |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                             |             |
| 본문      | 사무엘하 19:16~30   |                             |             |
| 말씀요약    | 다윗이 요단을 건널 때 전에 다우시를 저주했던 시므이가 와서 용서를 빕니다. 아버새가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고 하나, 다윗은 그를 살려 줍니다. 므비보셋은 다윗의 맞으며 전에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다윗에게 자신을 모함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지라고 합니다.   |                             |             |
| 목상질문 1  | 용서를 비는 시므이 19:16~23<br>다윗은 자신을 저주한 시무이가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대했나요? 진심 어린 용서는 아닐지라도 내가 용납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                             |             |
| 목상질문 2  | 므비보셋을 질책하는 다윗 19:24~30<br>사무엘서 저자는 므비보셋과 시바의 말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나는 참과 거짓이 혼재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진리를 분별하나요?   |                             |             |
| 한절목상    | 사무엘하 19장 22~23절<br>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에게 가장 큰 모욕을 주었던 시므이가 승리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새가 그를 죽이겠다고 나서자 다윗이 아버새를 저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시므이를 자기 백성으로 본 것입니다. 자신을 저주한 사람을 용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은 다양한 사람을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온전한 용서는 아닐지라도 저주와 기만을 용납하는 마음은 성숙한 마음입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하나님, 권력의 유무와 상황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모습이 제게는 없는지 돌아봅니다. 제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을 무시했던 교만을 용서하소서, 편견과 선입견 없이 사람을 그 존재로 자체로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허락하소서.  |                             |             |

|         |   |                         |             |
|---------|---|-------------------------|-------------|
| 매일 Q.T. |   | 아들의 죽음 앞에서 쏟은<br>회한의 통곡 | 날짜 : 5월 16일 |
| 찬양      |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                         |             |
| 본문      | 사무엘하 18:24~33   |                         |             |
| 말씀요약    |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던 다윗은 아히마아스가 온다는 말에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아히마아스는 승전 소식을 알리고, 압살롬의 안부는 모른다고 둘러댁니다. 이어 구스 사람이 와서 압살롬의 죽음을 알립니다. 다윗은 마음이 아파서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읊니다.  |                         |             |
| 목상질문 1  | 전쟁 소식을 기다리는 다윗 18:24~30<br>전쟁 소식을 기다리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이었나요? 지금 나의 관심사는 공동체의 유익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                         |             |
| 목상질문 2  | 아들의 죽음 소식과 다윗의 반응 18:31~33<br>압살롬의 죽음 소식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다윗의 가슴 아픈 통곡을 보며 오늘 내가 기억할 교훈은 무엇인가요?  |                         |             |
| 한절목상    | 사무엘하 18장 33절<br>인생의 비극은 죄에서 시작됩니다.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왕권을 지키게 되었음에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우시의 집에 일어난 비극의 시작점은 다윗의 죄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이라는 다윗의 탄식은 자신의 죄에 대한 탄식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죄도 크게 보는 성도가 죄의 영향력을 막고 경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욕망을 따른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게 됩니다. 연약한 제 마음과 삶을 은혜로 온전히 붙드셔서 죄를 미워하며 그 모양이라도 철저히 버리게 하소서. 가정과 교회 안에 승리의 좋은 소식이 기쁘게 전해지도록 항상 도우소서.   |                         |             |

|         |  |                         |             |
|---------|--|-------------------------|-------------|
| 매일 Q.T. |  | 사사로운 슬픔에 빠져<br>비난받는 지도자 | 날짜 : 5월 17일 |
| 찬양      |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                         |             |
| 본문      | 사무엘하 19:1~8  |                         |             |
| 말씀요약    |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 슬퍼하니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됩니다. 요압은 왕의 이런 행동이 왕을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는 것이라며, 부하들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면 모두 왕을 떠나리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성문에 앉으니 백성이 나아옵니다.  |                         |             |
| 목상질문 1  |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 19:1~4<br>다윗의 군사들은 왜 도둑처럼 가만히 성으로 귀환했나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도 눈치를 보거나 드러낼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면 언제인가요?  |                         |             |
| 목상질문 2  | 다윗을 질책하는 요압 16:5~8<br>요압은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항의했나요? 나의 표정이나 태도가 누군가의 비난을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                         |             |
| 한절목상    | 사무엘하 19장 2~3절<br>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은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 군대는 공로에 따른 보상과 환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다윗으로 인해 마치 패배한 군대처럼 슬며시 돌아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는 울 수 있지만, 왕으로서 군대의 수고를 치하하듯 승리의 기쁨을 나눠 주었습니다. 지도자의 시선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향할 때, 지도자의 권위가 존중받고 공동체가 평안을 누립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하나님, 깊은 슬픔과 좌절로 헤매고 있을 때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고, 마땅히 보고 듣고 행해야 할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소서. 저의 경험과 강정에 빠져 타인의 기쁨을 헤아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                         |             |

|         |   |                       |             |
|---------|---|-----------------------|-------------|
| 매일 Q.T. |   | 공의로운 판단이 결여된<br>유화 정책 | 날짜 : 5월 18일 |
| 찬양      |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                       |             |
| 본문      | 사무엘하 19:9~15  |                       |             |
| 말씀요약    | 압살롬에게 기름 부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다우시를 왕으로 다시 모셔 와야 할 때라고 변론합니다. 다윗은 형제요 골육인 유다 지파에게 왕을 모시는 일에 나중 되지 말라고 전합니다. 다윗이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삼자 모든 유다 사람이 다윗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길갈로 옵니다.   |                       |             |
| 목상질문 1  | 다윗을 도시 왕으로 모시려는 백성 19:9~10<br>반란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의논했나요? 지도자를 뽑을 때 하나님께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길 먼저 기도하나요?  |                       |             |
| 목상질문 2  | 유다 지파와 협상한 다윗 19:11~15<br>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에 핵심 세력이던 예루살렘의 유다 지파를 어떻게 대했나요? 공의로운 판단이 결여된 유화 정책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                       |             |
| 한절목상    | 사무엘하 19장 13~14절<br>무조건적인 관용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윗은 바역한 압살롬 편에서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유다 사람들을 끌어안습니다. 이어 그들의 군사령과 아마사에게 다윗 군대의 군사령과 자리를 약속합니다.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기 위한 다우시의 회유책은 외면상 모든 지파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룹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갈등과 혼란의 불씨마저 잠재우지는 못합니다.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것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한 발판입니다. |                       |             |
| 적용      |   |                       |             |
| 오늘의 기도  | 하나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 백성도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가 하나 되어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                       |             |